

제주드림타워, '스테이크 하우스' 스카이 브런치 출시

북한리조트 제주드림타워는 리조트 내 그랜드 하얏트 제주의 38층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10월부터 스카이 브런치를 운영한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월·화 휴무)하며 조식으로 도 이용가능하다. 메뉴는 에피타이저, 메인, 디저트 3코스와 함께 음료 1잔으로 구성했다.



제주삼다수, 품질 초격차로 점유율 1위 지킨다

“수질 검사만 연간 2만 회… ‘좋은 물’로 승부수”

제주삼다수가 '품질 초격차 전략'으로 '국민 생수'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안전한 물, 맛있는 물, 최고의 품질'을 슬로건으로, 생수의 최우선 가치를 품질에 두고 '좋은 물'로 승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1998년 론칭 이후 24년간 지키고 있는 시장점유율 1위 자리도 더욱 굳건히 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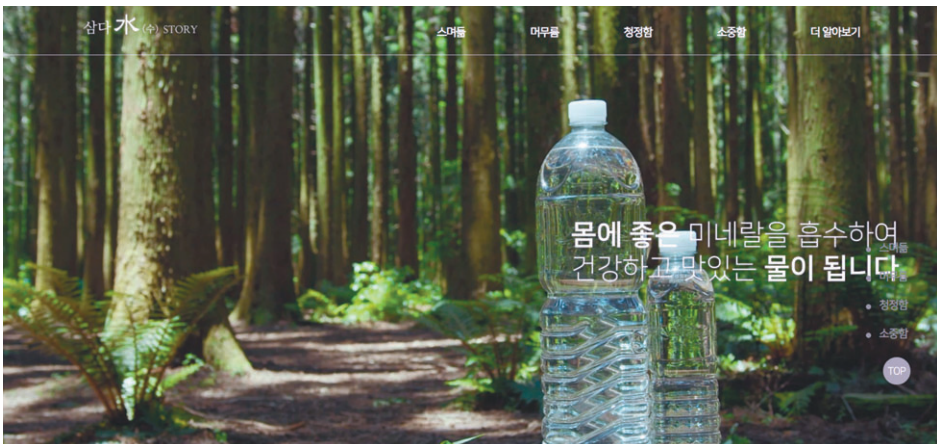
취수원 주변·토양 등 종합 모니터링 수질검사, 법적 기준 940회 상회 론칭 이래 한번도 부적합 받지 않아 수원지 공개 위해 아카이브 오픈

●천연 필터에 18년간 정화된 화산암반수

먼저 제주삼다수를 생산 및 판매하는 제주개발공사는 4년간의 연구 끝에 제품의 근원지를 찾아내 품질 관리의 시작을 생산 지역까지 확대했다. 제주삼다수는 한라산 해발 1450m 이상에서 스며든 강수가 수많은 현무암과 화산송이층을 통과하며 정화된 화산암반수다. 삼다수가 생성되는 지역은 제주시 조천읍 삼다수 취수원(해발 440m)보다 약 1000m 높은 해발 1450m 이상의 한라산국립공원 진달래밭대피소(1475m) 인근 지대로 확인됐다.

한라산 고지대에 내린 강우가 18년간 화산송이라는 자연이 만든 천연 필터를 통과하며 칼슘, 칼륨, 마그네슘, 실리카, 바나듐 등 풍부한 미네랄을 갖춘 지하수가 된다. 원수의 품질이 뛰어나기에 단 순 여과와 자외선 살균만을 거쳐 제주삼다수로 만들어진다.

제주개발공사는 뛰어난 품질을 지키



제주삼다수가 생수의 최우선 가치를 품질에 둔 '품질 초격차'를 통해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더욱 굳건히 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삼다수를 구매하는 고객(위)과 '삼다수 스토리 아카이브' 웹사이트.

사진제공 | 제주삼다수

기 위해 취수원 내 106개의 관측망을 두고 지하 수위, 취수량, 하천 유출, 토양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취수원 주변의 지하수를 직접 관리하며, 취수원을 둘러싼 토양까지 매입했다.

주변 토지 및 지하수 관리로 잠재오염원을 차단한 후에도 자체 검사를 통해 수질을 진단하고 있다. 환경부의 먹는물 관리법에 의해 연간 2274건의 검사를 받

아야 하는데, 법적 기준의 940%를 상회하는 연간 2만 회 이상의 수질 검사를 진행해 보다 확실한 수질 안정성을 꾀하고 있다. 또 공장의 제품 생산 과정에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품질과 식품 안전 관리, 환경 분야에서 10개 이상의 인증을 취득하는 등 안정성 있는 품질 관리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 결과 제주삼다수는 1998년 론칭 후 지금까지 수질 변화가 없고, 단 한번

도 행정기관으로부터 수질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국내 생수 제조업체의 약 17%가 원수의 수질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아카이브 사이트 통해 수원지 정보 공개

제주 지하수의 보호·보전을 위해 실시했던 조사와 연구를 집약해 지난해 '삼다수 스토리 아카이브' 웹사이트를 오픈했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추구하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원하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제품의 신뢰도를 올리는 게 목표다.

제주개발공사와 삼다수 브랜드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가능하며 스며들, 머금음, 청정함, 소중함이라는 총 4개 섹션으로 구성했다. 삼다수의 생성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부터 수원지의 특징, 원수와 제품의 영양성분, 공사의 수질 관리까지 다양한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전문 용어에 대한 친절한 설명은 물론, 다양한 이미지와 모션그래픽을 활용해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연구 결과나 정보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물은 무색무취로 육안으로 품질의 좋고 나쁨을 눈으로 구분하기 어렵기에, 고객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한결같이 좋은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생수 브랜드의 중요한 원칙”이라며 “제주삼다수는 1위 브랜드로서 고객에게 더 좋은 물을 제공하도록 연구하고 있으며, 업계 모두가 수질과 품질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서울 종로구 청계천변의 SK에너지 팝업스토어 'SK 주(酒)유소(위)와 주유기 콘셉트의 디스플레이에서 맥주를 잔에 담고 있는 고객. 사진제공 | SK에너지

“SK 주(酒)유소”에서 맥주 즐기세요 SK에너지, 60주년 팝업스토어 오픈

한국 최초 정유사 역사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

SK이노베이션의 석유사업 자회사 SK에너지가 SK이노베이션 창사 60주년을 기념하는 팝업스토어 'SK 주(酒)유소'를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관철동)에 지상 2층 규모로 선보였다.

대한민국 최초의 정유사가 걸어온 60년 역사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누구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만든 것이 특징이다.

전국 SK 주유소에 적용된 디자인을 입혔으며, 주유가 차량의 에너지를 채우는 일이듯 SK 주(酒)유소를 방문하는 누구나 삶의 에너지와 행복을 채우고 가길 바라는 주제로 구성했다.

1층에는 레트로 콘셉트를 반영해 SK에너지와 SK주유소의 지난 60년 역사를 소개하는 공간으로 꾸몄으며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좌석과 테이블이 마련됐다.

2층 홀은 SK 주유소가 지향하는 '친환경 Green 에너지 거점'으로서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도록 했다. 주유소 부지를 활용한 분산발전예 쓰이는 태양광 패널 디자인의 테이블, 연료전지를 이용해 친환경 전력을 생산하는 주유소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을 뜻하는 연료전지 모양의 좌석을 마련했다.

특히 고객이 원하는 맥주를 마시고 싶은 만큼 추출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는 각 층의 주제에 맞춰 1층 주유기, 2층 전기차(EV) 충전기 디자인으로 구성해 재미를 더했다.

4일 개장한 SK 주(酒)유소는 31일까지 운영되며 평일은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주말은 오후 3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SK에너지는 수익금 전액을 겨울철 사회공헌활동에 기부할 계획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널디, 나태주 시인과 한글날 컬래버 출시

에이피알의 패션 브랜드 널디가 나태주 시인과 손잡고 10월 9일 한글날 맞이 한정판 제품(사진)을 선보였다. 넉넉한 품세 운동복, 먼 소재 긴팔·반팔·모자 상의 등 총 4종으로 구성했다. 넉넉한 품세 운동복은 훈민정음 체로 표현한 널디의 한글 이름과 오방색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모자 상의와 반팔 상의에는 널디 훈민정음 인장과 나태주 시인의 시 '풀꽃'의 시화를 담았다. 긴팔 상의는 널디 한글 인장이 여백의 미와 함께 조화를 이룰 깔끔하고 간단한 의상 맞춤이 가능하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LG, 크립토크와 ‘양자내성암호’로 전장부품 보안 강화

양자컴퓨터로도 해독 어려운 기술 차량 탑승자 프라이버시 침해 차단

자동차의 전장화 가속화로 보안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LG가 양자기술을 활용해 사이버 보안 강화에 나섰다.

LG전자와 LG유플러스는 크립토크와 양자내성암호(PQC)를 활용한 커넥티드카 사이버보안 기술 연구개발(R&D) 고도화를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양자내성암호는 슈퍼컴퓨터보다 연산력이 뛰어난 양자컴퓨터로도 해독이 어려운 새 암호화 기술이다. 컴퓨팅 기술



천정희 크립토크 대표, 은석현 LG전자 VSA사업본부장, 최백진 LG유플러스 기업부문장(왼쪽부터). 사진제공 | LG전자

발전으로 공개키 방식의 기존 암호체계가 양자컴퓨터로부터 공격받을 가능성이 나오면서 주목 받고 있는 차세대 보안기술이

다. IBM과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도입하고 있다.

LG전자는 4월 세계 최초로 양자내성암호 전용 통신망을 구축한 LG유플러스, 암호기술 전문 스타트업인 크립토크와 함께 글로벌 완성차 고객들에 신뢰성 높은 전장부품을 제공하기 위한 양자내성암호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LG전자는 양자내성암호 기술의 전장부품 관련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이 기술을 적용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IVI) 시스템 프로토타입을 개발한다. LG유플러스는 양자내성암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크립토크는 차량용 양자내성암호

알고리즘 개발과 최적화를 담당한다.

차량의 전자제어장치들이 사용자 개인 정보에 기반해 개인화되면서 탑승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사이버보안 위협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LG전자는 이런 추세에 맞춰 자동차 부품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플랫폼 환경에서 차세대 암호체계를 선제적으로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또 차량 내 결제서비스(PoI), 차량과 모든 개체 간 통신(V2X), 무선업데이트(OTA) 등 전장사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내성암호 기술을 적용해 사이버보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LG전자는 지난해 이스라엘 자동차 사이버보안 기업인 사이벨럼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도 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이재용 부회장, 손정의 만났다…ARM 협력 논의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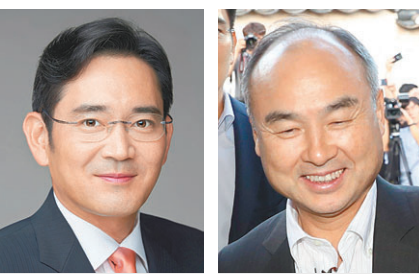
〈삼성전자〉

〈소프트뱅크 회장〉

삼성 경영진과 ARM CEO도 동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방한 중인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만났다. 영국의 반도체 설계기업 ARM과 관련한 협력 논의가 있었을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진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손 회장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만났다. 회동에는 경계현 삼성전자 DS(반도체)부문장(사장), 노태문 MX(모바일 경험)사업부장(사장) 등 삼성전자 측 경영진과 르네 하스 ARM 최고경영자(CEO)가 동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회동에 앞



이재용 부회장

손정의 회장

서 이 부회장과 손 회장이 ARM과 관련된 언급을 해왔던 만큼 ARM의 인수 또는 투

자 등 관련 의견을 교환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부회장은 앞서 지난달 21일 해외 출장 귀국길에서 ARM과 관련된 질문에 “다음 달에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서울로 오면, 어떤 제안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외신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번 방문에 대한 기대가 크다. 삼성과 ARM의 전략적 협력을 논의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근 기자